



불교충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4년
2015년 5월 8일
음력 3월 20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법등(구창희)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9년 제186호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종령 법어



오늘은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먼저 네팔의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네팔과 일본의 대지진, 화산 폭발,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중동 IS의 테러와 전쟁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치은 인간들이 막상 자연의 변덕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남, 나와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지를 우리는 자연재해, 환경오염, 테러와 전쟁을 통하여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本佛性)과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

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혀시길 바랍니다.

성도합니다. 오마니반메훤. 오마니반메훤. 오마니반메훤.

총기 44년(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중 종령 효강 합창

부산·영도 『삼밀사 관세음보살 및 원상』 헌공 가지 불사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스승, 교도 500여명 동참



▲ 삼밀사 관세음보살 입상 제막식

불교총지중 부산 영도구 삼밀사가 관세음보살 입상 및 원상 헌공가지불사를 봉행했다.

총지중 부산 경남교구(교구장 정인화 전수) 삼밀사(주교 서령)는 약 15개월에 걸친 관세음보살 입상 및 원상 봉안을 마치고 이날 제막했다. 효강 종령 예하, 법등 총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국의 스승 및 교도 500여명이 동참했다.

서원당 앞 마당에 봉안된 높이 약 6미터의 관세음보살상 제막에 이어 총리원장 법등 정사의 비밀 의계에 의한 봉안불사가 이어졌다. 관세음보살 상을 마주보고 봉안된 원상은 효강 종령 예하와 법등총리원장, 서령 삼밀사 주교 등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제막하였다.

법신 정사(법성사 주교)의 사회와 시정 정사(덕화사 주교)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회는 헌화와 훈향에 이어 효강 종령 예하는 "오늘,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대중이 다 함께 봉안 가지 불사를 올리고 서원 하오니, 이 삼밀사가 관세음보살의 가지력으로 어렵고 힘든 중생 구제의 전당이 되기를 서원

합니다.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의 원천이 되게 하며, 세계 평화를 이루는 불국토가 되게 하옵소서" 며 헌공사를 부처님 전 고 하였다. 이어 법등 총리원장은 "중단에서는 진주 화음사에 이어 관세음보살 입상을 건립 봉안하는 가지 불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높이 6미터의 입체적인 양식의 투조 관세음보살은 삼밀사를 찾는 교도들과 불자들에게 많은 가지력으로 중생구제의 상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세음보살 입상 건립 및 건립에 동참 해주신 삼밀사 교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삼밀사 주교 서령정사는 "먼저 이 헌공 불사에 동참해 주신 스승 및 교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헌공불사가 있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정진해주신 삼밀사 회장님과 교도들에게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며 그간의 감회를 밝혔다.(화보 7면)

부산 삼밀사-김종열 기자

봉축사

고통 받는 이에게 자비희사를



오늘은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온 세상을 밝힌 진리의 등불이시자, 삼계의 스승이고 자부이신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불자여러분들의 소구 소원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요즈음 전 세계는 이상 기후와 화산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탄신지가 있는 네팔은 대지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네팔은 81년 만에 수도인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약 7,200여명의 사

망자와 1만 2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그야 말로 아비규환의 상태라 합니다. 네팔은 우리 불자들이 평생 한번은 가봤으면 하는 부처님의 탄생지입니다. 불교의 수많은 유적이 자연의 노여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진리를 통한 인간의 행복에 있습니다. 고귀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고난의 수행자를 택한 이유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그들을 방편으로 교화하여 구제 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의 차이와 소통과 화합의 부족으로 많은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등의 화합에 가장 좋은 방편이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무주상보시로 서로 나누는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한결 빨리 치유 될 것입니다.

다. 총지중을 입교개종하신 원정 대성사께서도 "희사묘덕(喜捨妙德)은 현재에는 곤난(困難), 재앙(災殃), 우환(憂患), 질병(疾病)을 소멸하고 미리 없애며 미래에는 부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느니라."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과 물질을 서로 나누어 어려운 이들에게는 용기를 전하고, 내 자신의 복덕을 증장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나라 네팔 국민들이 하루속히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서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 합니다.

불기2559년 음력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불교 총지중 총리원장 법등 정사 합창

“집중 수행을 통해 법력을 증장하자”

제85회 춘계강공회 총지중 괴산 수련원 중원사에서 봉행



▲ 중원사 서원당에서 봉행된 춘계 강공회

총기 44년 불교총지중 춘계강공회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괴산 수련원 중원사에서 봉행되었다. 전국의 기로스승을 비롯한 총지중 승단은 21일 오후 1시 30분 중원사 서원당에서 총무부장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개강불사를 봉행했다.

3.7 의계에 이어 불교 총지중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이번 춘계 강공회는 괴산 수련원 중원사의 시설 준공과 함께 전 스승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행의 장을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 스승님들은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 정신을 되새겨, 중생구제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수행자로서의 교도와 동료 스승에게 스스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며 중조님 입교개종의 정신으로 진리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강공을 통해 총지중 괴산 수련원이 한국

밀교의 중심 수행 도량으로 발전하기를 서원합니다."며 강공에 임하는 스승들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강공 원만을 서원했다.

이어 효강 종령 예하의 특별 정선교육이 이어졌다. 이번 강공에는 밀교연구소 소장 법경 정사의 "삼밀관행"과, 중앙교무원장 화령 정사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강의가 있었다. 강공회에 앞서 원의회, 유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연석으로 열려 중앙 총회에 상정 할 안건들을 심의했다.

23일 오전에 열린 승단총회(의장 효강 종령)에서는 법문화 관련 시행계획과 전수 해외연수 및 정복제정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4월 17일 열린 중앙총회에서는 총기43년 결산서 심의 및 현안에 대한 안건 등을 처리했다.

괴산 수련원 중원사-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빠른 짙은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제(淨助)는 부처님 제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네팔 대지진 복구지원을 위한 모연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81년 만에 닥친 대지진은 수많은 네팔 국민들의 삶을 하루 아침에 빼앗아 갔습니다. 7,200여명의 사망자와 1만 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번 대지진은 많은 불교 문화재와 유적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 참배해 보고 싶은 불자들의 고향 네팔에 진심어린 자비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서원합니다. 각 사원 주교님과 총리원으로 연락 주시면 방편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무로 수희 동참하시어 선업 공덕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총지중 총리원 (02)552-1080 및 각 사원 주교
불교 총지중 총리원장



김기자가 가다

염송정진으로 불가능은 없다.

포항 수인사 김선희 보살

포항은 어느덧 한여름의 중간에 들어선 날씨다. 내려 쬐는 햇볕은 강렬한 자외선을 쓰고 있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수인사는 자원봉사 단체인 「수인회」의 무료 급식 봉사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무료급식에 제공될 음식들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하고 수인사 신도들이 보시하기도 한다. 아직은 많은 인원이 찾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었다.

4월 마지막 주 자성일 법회를 마친 후 주교님 사택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김선희 보살님의 첫인상은 활발한 리더의 성격을 가진 모습이었다. 오십대 초반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 보살님은 벌써 우리나라로 예수를 넘겼다 한다.

먼저 총지종의 입교 계기를 물었다. 보살님의 고향은 경주다. 처녀 시절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남다른 성격의 소유자 였다. 당시 국광사에는 지금은 열반에 드신 보살님의 이모님이 염송정진을 하고 있었다. 진각종에서 시작하여 입교 개종과 동시에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모님의 교화로 총지종에 입교한 김 보살님은 성격 만큼이나 신행도 똑 부러지게 했다. 결혼 초에는 마산에서 신혼살림을 시작 했는데, 이때는 운전사를 나갔다고 했다.

보살님은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새벽 염송을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 지금은 각자님과 아들이 함께 눈만 뜨면 염주를 돌리고 항상 몸매 지니고 다니며, 시간이 될 때마다 불공을 한다.



▲ 포항 수인사 김선희 보살

보살님은 각자님과 아들의 출근 준비를 마지면 매일 서원당에 8시면 도착한다.

한번 마음으로 서원한 불공은 회사와 함께 정한 날까지 꼭 마친다. 보살님은 동참불공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한 기도 공덕이 바로 나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이 부처님의 참뜻이라 여긴다. 보살님은 45살 되던 해부터 단



▲ 김선희 보살이 사경한 금강경 노트

하루도 서원당 불공을 빠진 적이 없으시다. 한번 먹은 마음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불퇴전의 각오로 진언 염송 수행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새해불공 때는 부처님의 당체 법문을 받고, 회사 정진하여 집안의 여러 위기를 잘 넘기기도 했다. 우연한 계기에 사경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천수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수행이든 찾아오는 마장으로 사경에서 잠시 손을 놓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꿈에서 연필 한 다발과 지우개를 묶은 것이 떨어지는 꿈을 꾸다. 그러나 한번 손을 놓으니 쉽게 사경 수행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런 다음 꿈속에서 큰 잉크 한병을 받는 꿈을 꾸고 깨자 이는 사경 수행을 계속 하라는 부처님의 당체 법문으로 알고, 접어던 노트와 펜을 다시 꺼냈다. 지금은 사경하는 시간이 그 어떤 순간보다도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고 삼매에 드는 수행의 지름길로 보인다.

지금은 입교로 이끌어 주신 이모님 가족과 어머니, 아들이 모두 진언 수행에 정진하는 총지인이 되었다. 보살님은 종조법설집 제117페이지 에 나오는 계승 중 "칠일불공에는 4일 불공 고개가 있고, 백일 불공에는 육순고개가 있고, 삼칠불공에는 열하루 고개가 있고, 칠칠 불공에는 이십오일 고개가 있고, 평생 수행에는 사년고개가 있느니라. 이것을 알아서 숙지 말고 용맹으로써 고개를 깨달아 넘어가는데 평탄한 길을 얻어서 행복한다 이르게 되느니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참 수행인이다. 보살님은 요즘도 한사람의 중생이라도 교화 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것이 부처님의 진리를 나누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포항 수인사 = 김종열 기자

동국대, 개교 109주년 기념식 개최

7일 오후 4시 본관 중강당서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7일 오후 4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 109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한태식 총장은 기념사에서 "개교 109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동국대의 새로운 백년, 아니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갈 것"이라며 "풍요로운 대학, 참사람 열린교육, 대학다운 대학, 새로운 의의까지 창출, 미래로의 도약 등을 목표로 하는 일심동행(一心同行)의 철학"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개교기념식에는 한 총장을 비롯해 이사장 일면스님과 교직원,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동국우수연구자상 및 교원상, 동국불자상과 함께 장기근속자와 우수 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도 진행됐다.

우수 교원들의 연구업적을 격려하기 위한 '동국우수연구자상'에는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국제저명 저널에 주저자로 게재된 논문 중 각 학문분야 내 영향력 있는 논문

으로 꼽힌 비율이 가장 높은 교수를 선정하는 최우수 논문부문에는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노용영 강용목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최우수 연구업적부문은 하홍열 국제통상학부 교수와 박강령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가 수상했다.

이 밖에 동국대는 37년 만에 대학야구 4관왕의 대기록을 달성하는 등 동국대 야구부의 전성기를 이끈 이진열 감독을 포함해 양성웅(경영평가실), 공혜정(정보운영팀), 진혁진(취업지원센터), 이창용(학술정보서비스팀), 이진복(자산관리팀) 직원 등 6명에게 공로상을 시상했다. 또한,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과 장기근속상 시상도 진행했다.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에는 김대일 미술학부 교수와 정경훈 전략예산팀장이 선정됐으며, 장기근속상(30년, 20년, 10년)은 각각 교수 64명과 직원 24명 등 총 88명에게 돌아갔다.

총기 44년 제1차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개최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법등 정사)은 4월 17일 오후 2시 통리원에서 이사장 법등 정사, 이사 인선 정사, 법경 정사, 법일 정사, 김성규, 방귀희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기44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회복지재단 이사회에서는 총기43년(2014년) 결산서 심의, 임기 만료 이사의 선임, 백월사 불우 교도가정 지원 등을 심의 의결 했다.

신임 이사에는 우인 정사, 지현 전수를 선임하고, 감사에는 법일 정사를 선임하기로 결의 했다.

구독문의
02) 552-1080

부산.경남 및 충청.전라 신임교구장 취임

부산·경남 정인화 전수, 충청·전라 지정 정사



▲ 신임 부산·경남교구장 정인화 전수



▲ 신임 충청·전라교구장 지정정사

불교 총지종 부산. 경남 교구 신임 교구장에 4월 16일 교구 총회를 열고 관음사 주교 정인화 전수를 신임 교구장에 선출 하였다. 교구 총무에는 실보사 주교 덕광 정사가 선임되었다. 또한 충청. 전라 교구는 지난 2월 10일 교구 총회에서 전주 흥국사 주교

지정정사를 신임 교구장에 선출하고, 교구 총무에는 광주 법화사 주교 도현 정사가 선임 되었다.

총지종 지역 교구장은 교구 구성원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3/26	10,000
	강순시	4/16	10,000
관성사	황성녀	3/27	10,000
	인선	4/20	20,000
기로	대관	4/20	10,000
	밀공정	4/20	10,000
	법수원	4/20	10,000
	법장화	4/20	10,000
	법지원	4/20	10,000
	불멸심	4/20	10,000
	사홍화	4/20	10,000
	상지화	4/20	10,000
	수증원	4/20	10,000
	총지화	4/20	10,000
	선도원	4/20	10,000
	해정	4/22	10,000
단음사	법연지	4/20	10,000
덕화사	전순기	3/30	10,000
만보사	정덕순	4/2	10,000
밀인사	정정희	3/30	5,000

	이기상	4/6	10,000
	이성수	4/6	10,000
	안옥진	4/6	10,000
	박주연	4/6	10,000
	이수연	4/6	10,000
	이혜성	4/13	30,000
밀행사	무명씨	3/27	20,000
백월사	이갑진	4/22	20,000
벽룡사	양정현	4/1	10,000
	양지현	4/1	10,000
선립사	심지장	4/17	10,000
수인사	무명씨	3/30	20,000
	정순득	4/13	10,000
승천사	원봉	4/16	10,000
	지선행	4/16	10,000
실보사	이순옥	4/1	10,000
실지사	정경자	3/31	10,000
	박병성	4/9	50,000
	이순명	4/15	10,000
	유승태	4/17	10,000

운천사	반야화	4/6	30,000
	무명씨	4/15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3/26	30,000
	서선숙	3/26	10,000
	이지민	3/26	10,000
	김용미	3/27	10,000
	박문실	3/27	10,000
	구미자	3/31	10,000
	천소영	4/13	10,000
	김지영	4/24	10,000
정각사	탁상달	3/31	20,000
	변순개	4/13	10,000
	김문수	4/17	10,000
지인사	지성	4/16	10,000
	승효제	4/16	10,000
	허성동	4/17	30,000
초록어린이집	이은주	3/31	10,000
총지사	법등	3/30	30,000

백지순	4/3	30,000	
이인성	4/13	30,000	
일성혜	4/20	10,000	
손경옥	4/23	10,000	
혜정사	최영례	4/20	10,000
화음사	강순란	4/2	10,000
흥국사	지정	4/16	20,000
사원명무기재	김갑선	4/20	10,000

3월26일부터 4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총지중 총기44년 제122회 중앙총회 개최

임기만료 주요 공권직 임원 선출 및 총기43년 결산서 심의 원의회, 재단이사회, 복지재단이사회도 열려



▲ 제 122회 총지중 중앙총회

4월 17일 오전 11시 총지중 통리원 불참 2명으로 15명이 성원을 이루어 2층 반야실에서 총기44년 제122회 중앙총회(의장 수현 정사)가 개최됐다. 이날 중앙총회는 총기43년 결산서 중회의장 수현 정사의 집공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의원 17명 중

지난 4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된 사감위원에는 정인화 전수, 법일 정사가 추천돼,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4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복지재단 이사에는 도현 정사, 법경 정사, 지정 정사가 유임 되었고, 신임 지현 전수가 추천되었다. 7월 23일 임기 만료되는 감사에는 승원 정사와 법일 정사가 추천되어 함께 사회복지재단에 임명을 요청했다.

유지재단은 6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대신해 법우 정사, 정원심 전수를 추천 했다.

감사에는 법일 정사를 신임으로 추천하고 승원 정사는 유임했다.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장에는 법등 통리원장을 추천하고 정각사 주교 법상인 전수의 이사 선임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또한 원의회, 유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도 함께 열려 주요 안건을 심의 결의 했다.

부산연등축제 정각사 홍보 부스 만원

만다라 사경, 연등 만들기, 팝콘부스 대인기



▲ 부산 송상현 공원에 설치한 총지중 정각사 홍보 부스

부산 정각사가 부산연등회가 주최하는 연등축제 한마당에 5월 1일부터 3일 까지 총지중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한 연등축제는 양정 송상현 공원 잔디밭에서 열렸다. 연등만들기, 단주만들기, 만다라 페인팅, 녹차시음, 팝콘 무료 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정각사 부스는 연인원 약 1,000여명이 다녀간 인기 부스로 자리를 잡았다.

정각사 주교 법상인 전수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봉축 당일 정각사에도 다양한 전시,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도들 뿐 만이 아니라 주위의 불자들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서원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각사= 통신원 김정애, 김윤경, 이상록

통신원 소식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 활동 본격화

대내외 행사 적극 참가해 법음 흥포



▲ 49재에서 고인을 위한 조가를 부르는 부림합창단

지난해 창단한 마산 운천사(주교 정원심 전수) 부림합창단이 새봄을 맞아 대내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운천사에서 봉행된 사십구제의 조가를 연주하고, 오는 여름 있을 '오륙도 산문사'주최 공연에도 참가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부림합창단은 연습 외에도 서로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운천사=통신원 김삼연, 고지현, 이수연, 한경림

실지사 각자신행모임 '부림회' 봉축 준비 한창

개인시간 틈틈이 자원 봉사에 앞장



▲ 실지사 서원당에 연등을 설치하는 '부림회' 각자들

5월 25일 전국에서 봉행 될 예정인 불기2559년 봉축 법요식을 앞두고 실지사 서원당에는 부림회 각자님들의 손길이 바쁘다. 각자들의 신행모임인 실지사 각자회(회장 관덕 각자)는 초과일을 위한 환경 미화 작업과 서원당 등 달기 등 부처님 오신날 준비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특히 사원 마당에 철쭉 등 나무를 식재하고 해마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발한 부처님의 동산이 되기를 서원 했다.

실지사= 통신원 홍정숙

포항 수인사 "무료급식봉사" 본격운영

매월 넷째 일요일 점심 공양 제공



▲ 포항 수인사에서 매월 열리는 무료급식 봉사활동

포항 수인사의 자발적인 자원 봉사 단체 '수인회'가 본격적인 무료공양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매월 넷째주 일요일 수인사 마당에서 제공되는 무료공양은 일반 복지관들이 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점을 착안하여, 독거노인, 불우 청소년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양의 준비는 교도들의 자발적인 보시와 수인회 봉사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오기도 한다.

후원 문의: 포항 수인사(054)247-7613 수인사 = 통신원 정미혜, 이미애

불기2559년 부처님 오신날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교감 김재근 행정실장 석동훈 외 교직원 일동

불교의 선정 38 미얀마의 사념처 수행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사마타(Samatha)와 위빠사나(Vipassana)

불교수행의 기본은 사마타와 위빠사나

번뇌의 제거와 지혜의 증득은 지관쌍수에서

불교의 명상에는 집중을 통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사마타와 이른바 '통찰'이라고 일컬어지는 위빠사나가 있다. 흔히 이것을 지(止)와 관(觀)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지관균등(止觀均等)의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경지로 본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실 때에도 무색계정의 궁극인 멸진정에 머물렀다가 다시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색계사선(色界四禪)의 상태에서 반열반에 드셨다고 한다.

사마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동요하지 않게 하는 의미의 사맛디(samadhi:삼매)에서 나온 말인데 독서삼매니 바독삼매니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여 무아망념의 상태가 되는 것이 사마타이다. 사마타를 수행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사마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나 외부의 어떤 것에 마음을 고정하여 집중한다.

까시나와 아나빠나사띠를 통한 사마타 수행 밀교에서는 진언과 만다라를 이용

집중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것은 외부의 것으로는 까시나(Kasina)를 들 수 있고 내부의 것으로는 자기의 호흡을 바라보는 아나빠나사띠(anapanasati)라는 것이 있다. 까시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눈앞의 일정 거리에 일정 크기의 원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방법이다. 흰색,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원을 그려 놓고 주시를 하여 모양과 색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눈을 감고 다시 그것을 떠올린다. 모습이 흐려지면 다시 눈앞의 원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고 상에 집중한다. 밀교에서는 월륜권을 이용하여 달의 모습을 떠올리고 여기에 철학적 의미를 더하여 정신적인 집중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양(高揚)을 꾀하는 까시나의 가장 세련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진언을 외우거나 만다라관을 통하여 정신을 집중하고 일념이 되도록 하기도 한다. 만다라관은 까시나의 고도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무념이 되는 것 이외에도 밀교의 철학을 반영하여 명상하기 때문에 지혜의 개발에까지 원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꽃꽃이를 한다거나 다

도 등을 통하여 사마타 수행을 보조할 수도 있다. 어쨌든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무념무상이 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지혜의 개발로 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마타를 수행하면 첫째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언어,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적어질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

마타 수행을 통하여 한없는 기쁨과 마음의 지극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을 즈하나(jhana)라고 하는데 일종의 초월상태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외도들의 수행은 흔히 사마타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혼자서 법열을 느끼며 거기에 침잠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개발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초월의 경지를 깨달음의 궁극으로 잘못 알고 샅된 길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현실에서는 수행을 통한 지혜가 발현되지 못하고 사마타에만 머무르면서 현실 부적응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사마타를 통하여 보통사람으로서의 상상하기 어려운 능력을 얻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도 진정한 지혜가 수반되지 못하면 사도로 빠져버린다.

사마타에서 오는 니미타를 경계해야 외도들은 사마타에만 머물러

사마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집중되면 니미타(nimitta)가 떠오른다. 이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종의 환각상태와 비슷하다. 눈앞에 안개가 피어오르기도 하고 불보살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며 자기의 몸이 환한 빛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초현실

적인 현상이 나타나지만 사마타의 목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최종목적이므로 니미타의 발생을 무시하고 마음을 최초의 지점에 붙들어 매야 한다. 이러한 니미타의 발생은 의식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무시하고 계속하여 처음 니미타가 일어났던 곳을 주시해야 한다. 집중을 너무 강하게도 약하게도 하지 않고 니미타를 바라보면 그것이 사라진다.

외도들이나 수행의 경지가 얕은 사람들은 사마타를 통하여

의 모든 작용, 즉 오온과 육입처에 대한 알아차림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호흡관찰을 중심으로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공부이다. 모든 현상, 즉 오온인 색·수·상·행·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아무런 집착 없이 그대로 관찰하여 덧없고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집착과 갈애가 사라져서 마침내 마음이 만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아차림(Sampajana;正知)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비롯한 일체 대상이

한 순간도 고정됨이 없이 변하고 생멸하는 실체가 없는 것을 스스로 통찰한다.

일어나는 니미타 현상을 깨달음의 신호로 착각하고 거기에서 멈추어버린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러한 현상은 수행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마타에서 얻어지는 집중의 힘을 발휘하여 지혜를 개발하는 위빠사나로 발전한다.

위빠사나를 통하여 무상, 고, 무아를 증득 삼빠자나를 통한 알아차림이 핵심

위빠사나는 부처님께서 내면의 성찰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수행방법으로서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삼빠자나:Sampajana]에 의하여 '無常', '苦', '無我'의 지혜를 스스로 증득하여 열반에 이르는 최상의 수행법이다.

위빠사나(Vipassana)라는 말은 '두루', '철저히'라는 뜻의 'vi'와 '보다'라는 뜻을 지닌 passati라는 말의 명사형인 passana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vipassana는 '뛰어난 관찰', '철저히 살펴',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통찰함' 등의 뜻이며 모든 현상을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빠사나 수행은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몸과 마음

위빠사나를 수행하는 방법은 알아차림(Sampajana;正知)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비롯한 일체 대상이 한 순간도 고정됨이 없이 변하고 생멸하는 실체가 없는 것을 스스로 통찰한다. 알아차림이란 대상에 마음을 기울여 그것이 일어나고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주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시를 사띠(sati)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삼빠자나와 사띠는 차이가 있다. 주시하는 것과 그것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 주시를 통하여 알아차림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어쨌든 주시와 알아차림의 중심은 아나빠나사띠이다. 즉 아나빠나사띠는 호흡에 대한 주시와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그 방법은 자연스러운 호흡에 동반되는 복부(배)의 움직임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원래는 코 끝에 마음을 집중하여 호흡이 들락거림을 관찰하는 것이지만 움직임이 현저한 복부의 일어나고 꺼짐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며 특히 초심자들에게는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미얀마의 마하시 선센터 등지에서는 복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방법으로 개량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관성사
주 교: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밀인사
주 교: 정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법천사
주 교: 정사 법 경
전수 덕 현
☎ 031-751-8685

벽룡사
주 교: 정사 법 일
전수 자 행정
☎ 02-889-0211

총지사
주 교: 정사 법 등
전수 인덕심
☎ 02-552-1080

실지사
주 교: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2-983-1492

정심사
주 교: 정사 화 령
☎ 02-491-6888

지인사
주 교: 정사 지 성
전수 승효계
☎ 032-528-2742

시법사
주 교: 정사 서 강
☎ 032-522-7684



부처님의 실상(實像)과 허상(虛像)

석존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이다. 고우사쓰라국(國)에서 새로 불문에 들어온 수도자가 둘 있었다. 그들은 몸소 석존을 만나 설법을 듣고자 사위국을 향해서 출발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인가도 없는 황야가 펼쳐져 있었다. 그 당시 가뭄이 계속되어 가는 곳마다 샘물이 말라, 두 수도자는 더위와 갈증으로 매우 고통 받았다.

다행이 오래된 우물에서 1.8리터 가량의 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물을 마시려했으나, 물속에는 작은 벌레들이 많아서 불살생계를 지키려면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부러 먼 곳에서 부처님을 뵈고자 고생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틀림없이 광야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라고 탄식하였다.

그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서 "우선 우리들은 이 물을 마시고 목숨을 이룬 뒤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설법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살생이 되는 안되든 그런 것은 생각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나 다른 수행자는 듣지 않았다. "아니야 그것은 틀린 생각이야.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을 어기고 살생까지 하면서 자

그러나 다른 하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을 지킨 공으로 즉시 33천인 도리천에 다시 태어났다.

을 배알하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고했다. "세존이시여 나에게 동행이 하나 있었는데 도중에 피로와 기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의

어서 없어 질 것이다. 이 무상한 육체를 보러 여기까지 왔는가. 너는 부처의 설법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 법속에 비로소 깨끗하고 영원한 부처의 법신이 있는 것이다. 너의 동행 수도자는 법을 잘 지켜서 부처의 법신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부처님은 상냥한 말로 바꾸어 "수행자여 너는 내 형태만 보고 나의 가르침인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지금 나를 보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너를 보지 않는다. 아무리 나로부터 몇 천 몇 만 킬로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 계율을 지킨 너의 동행은 천인이 되어 현재 눈앞에 서있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다시 계(舍)로서 설법을 하였다.

"잘 배우고, 계율을 지키려면, 현재도 미래도, 소원을 성취한다. 배우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현재도 내세도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리. 의리를 밝히도록 힘쓰라 그러면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느니라.

법속에 비로소 깨끗하고 영원한 부처의 법신이 있는 것이다

기 자신만 살고, 부처님을 성긴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설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기고 살아남는 것 보다 좋지 않겠는가?"

이 둘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각자가 길을 찾아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사람은 결심을 하고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 뒤 사위국으로 향했다.

그는 과거의 공적으로 하늘에 다시 태어난 것을 알고 꽃과 향을 가지고 도리천에서 내려온 후 부처님 어전에 정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예배했다. 다른 하나는 물을 마시고 한 때 기운을 냈으나 며칠 동안 계속 걸은 결과 극심한 피로 끝에 부처님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는 곧 무궁한 덕을 지닌 부처님의 얼굴

말을 듣고 "아 그런가? 그것이면 나는 잘 알고 있다. 여기 천인은 너의 동행이었을 것이다. 그는 계율을 잘 지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 너보다 먼저 내가 있는 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덧붙여 이르기를 "너는 부처의 육신을 보로 왔는가, 여러 가지 많은 부정으로 몽친 이 육신을 보러 왔는가. 결국에는 죽



다시 생각해 보는 연등

5월은 다시 돌아 왔다. 작년 부처님 오신 날은 양력 4월에 들어 조금은 이른 감이 없지 않았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너무도 슬프고 잔인한 한 달을 보내야만 했다. 1년이 지나도 광화문에는 유가족들이 천막에 의지하여 하늘로 간 어린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다. 진상규명에 관해서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얘기들은 나의 답답함을 풀어 주기에는 앞뒤가 막힌 듯하다.

4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을 시작으로 불기 2559년 봉축 연등회가 시작 되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의 뜻으로 연등회의 행사 대부분을 취소했다. 오랫동안 축제를 준비해온 불자들은 아쉬웠지만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를 더 높이 새겼다.

불자들이 초파일 연등을 밝힐 때 가장 많이 듣는 법문 중의 하나가 가난한 여인 미수타의 등불 공양이야기다.

부처님이 사위국에 머무실 때, 왕과 부유한 장자들은 아름다운 꽃과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러나 가난한 여인 미수타는 구걸로 얻어오는 처지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엄두도 못내었다. 하지만 여러 마을을 전전하며 구걸을 하여 한 환도 안 되는 기름을 부처님께 공양한다. 한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와 불을 밝히던 등불들은 하나 둘씩 꺼지고 남은 한 개의



▲ 연등축제에서 등만들기를 하는 불자들(사진제공=연등회 보존위원회)

등불만은 꺼질 줄 모르고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공양한 등불인지 자세한 사연을 알아본 연후에 "미수타는 작은 등불의 공덕으로 백겁을 지나 성불 할 지니 그 이름을 '수미래등광' 여래라 할 지니라."고 말씀 하셨다. 미수타는 돈으로는 밝힐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등불을 공양함으로써 어둠을

밝히는 '수미래광'여래가 되는 수기를 받는다. 연등은 크거나 공양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불자들은 내 연등이 부처님전 가장 앞자리에 빛나기를 바란다. 진정한 무상 보시의 마음은 담지 않고 금전으로 자신의 지위와 우월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는 그저 등불일 뿐이다. 마음을 담지 않은 등불은 수백년을

돈으로는 밝힐 수 없는 아름다운 마음의 등불을 공양하자

지속한다 한들 그저 등불이고, 진정한 공양과 보시의 마음을 담은 연등은 아무리 작더라도 미수타의 등불처럼 부처님전에서 맨 마지막까지 빛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다. 그 가운데는 자본주의의 가장 심한 병폐인 천민자본주의가 횡행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인격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세계에는 사람이 가진 물질로 그를 판단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라하셨고, 그 나누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말라 한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 불자들은 마음이 설렌다. 연등으로 밝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저마다의 사원에서 밤을 세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연등을 만드는 손길마다 관세음보살 육자 진언을 한 번씩 봉독함은 어떨까? 그리고는 나를 위한 서원보다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병고해탈을,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이,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전해지기를 서원하자. 그러면 내 자신을 둘러싼 탐, 진, 치 삼독은 물러나고 연꽃향기 가득한 부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봉축 행사에는 조계종이 주최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 할 예정이다. 아마 전국의 불자들이 몰려들어 야단법석을 이룰 것 같다. 불자들의 간절한 평화의 서원이 한반도를 두루 비추어 통일의 그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바란다.

충지정보 편집장 김종열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정각사 주 교: 전수 법상인 전수 묘 홍 정사 혜 광 ☎ 051-552-7901	관음사 주 교: 전수 정인화 ☎ 051-896-1578	단향사 주 교: 정사 혜 봉 ☎ 055-644-5375	덕화사 주 교: 정사시 정 전수 원만원 ☎ 051-332-8903	밀행사 주 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법성사 주 교: 정사 법 선 ☎ 051-468-7164	삼밀사 주 교: 정사 서 령 전수 혜원정 ☎ 051-416-9835
성화사 주 교: 전수 수심정 기로승지 광 ☎ 051-254-5134	실보사 주 교: 정사 덕 광 전수 보 현 ☎ 052-244-7760	운천사 주 교: 전수 정원심 ☎ 055-223-2021	일상사 기로승: 수행 월 ☎ 055-352-8132	자석사 주 교: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1-752-1892	화음사 주 교: 정사 록 경 전수 법수연 ☎ 055-755-4697	



세종대왕과 함께 음악을, 그리고 불교를 느끼자

세종대왕릉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4.18.~5.30. 매주 토요일 신미대사와 인연 한글창제, 불사로 이어져

백성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겼던 임금. 문화 황금기를 이룩한 조선을 대표하는 임금을 꼽으라 하면 주저 없이 세종대왕을 선택할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이 있는 5월. 조선 불교의 기틀을 잡았던 세종대왕과 함께 문화의 향기에 흠뻑 젖어 들어보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지난 4월 1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세종대왕의릉인 영릉 재실에서 작은 음악회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세종대왕과 함께 음악을 즐기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는 백성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겼던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와 조선 시대의 문화 황금기를 이룩한 업적 등을 살펴며 인문학과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이 어우러진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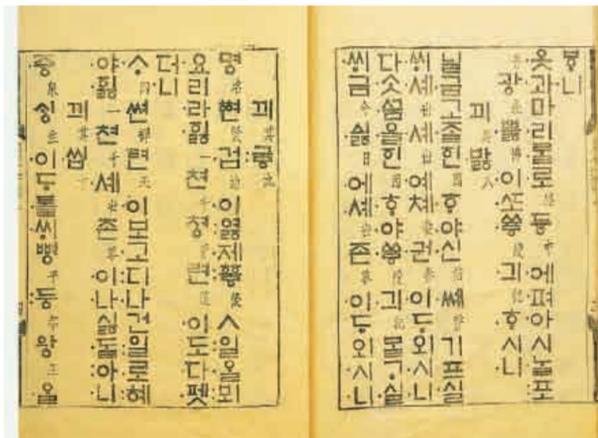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았던 세종대왕은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했던 유마거사와 닮아있다. 세종대왕은 장녀 정소공주를 일찍 잃었는데 이어, 광평대군, 평원대군이 잇달아 요절해 개인적으로 큰 슬픔을 겪었다. 먼저 간 자식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찰을 다니며 불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이후 의지했던 부인 소헌왕후의 승하 이후 세종대왕은 말년을 불교에 귀의해 살았다.

달리하여 찾아간다. 거문고, 가야금, 해금 연주와 판소리 등 다양한 국악 연주가 별도의 음향장비 없이 국악기 본래의 소리와 소리꾼의 목소리만으로 진행되어 관람객의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학문뿐만 아니라 국방과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났던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모든 음 체계의 바탕이자 기준이 되는 율관을 제작했다. 29세 때의 일이다. 율관은 음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 만든 12개의 관이다. 국내 최초로 편경을 만든 건 31세 때, 아악의 필수 악기인 편종을 만든 건 33세 때의 일이다. 연주를 위해 부족한 악기까지도 개발한 것이다.

당시 중국 중심의 음악관을 벗어나 우리만의 독자적인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힘쓰기도 했다. 음악 담당 관청인 관습도감을 설치해 박연에게 궁중음악을 정리하게 했다. 세종대왕은 음의 길이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악보집 <정간보>를 간행해 직접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 <정간보>는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동양 최초의 악보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요제약악을 비롯하여 훈민정음으로 지은 <용비어천가>를



▲ 월인천강지곡



▲ 석보상절

포함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시로 읊은 찬불가다. 현재 남아있는 상권에 실린 노래만 194곡. 상중하 3권이 모두 남아있었다면 600곡에 가까운 노래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월인천강지곡'이라는 말은 '부처가 백역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 교화를 베푸는 것이 마치 하나의 달이 천개의 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멸실된 것으로 여겨졌던 <월인천강지곡>이 발견된 곳은 1916년 부안 실상사였다.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이 조카 세조의 원찰 중 한 곳이었던 부상 실상사에 직접 봉안했던 것이다. 효령대군은 67세 때인 1462년(세조 8) 3월에 부안 실상사 삼존불 조성을 직접 권설했다. 4년 뒤인 1466년 4월에는 효령대군이 실상사 중창을 위해 발원문도 썼다.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볼 때 이 시기 삼존불에 봉장물로 모셔진 것으로 추정되는 <월인천강지곡>이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남아있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왜 훈민정음으로 유교 서적이 아닌 부처님 일대기인 <석보상절>을 펴냈을까? <석보상절>을 펴냈을 때는 소헌왕후 승하 후 명복을 빌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당시 한글 창제 과정에 중추적 역할을 한 어떤 인물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글이 그 근간을 범어로 했다는 설에서 기인하는데 당시 범어에 정통했던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의 주역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후 불경부터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신미대사의 영향이자 요청 때문이라고 한다.

신미대사는 수양대군을 도와 <석보상절>을 펴낸 집현전 학사 김수은의 친형이다. 당시 신미대사는 북한암 주지였는데, 북한암은 한글 창제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북천암 사적기>에는 '세종은 북한암에 주석하던 신미대사에게 한글 창제 중인 집현전 학자들에게 범어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신미대사의 속가 집안인 영산 김씨 족보에는 스님이 집현전 학자로 세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는 기록도 되어 있다.

하지만 신미대사가 실제 한글을 창제했다고 밝힐 수 없었던 것은 승유역불정책으로 집현전 학자들 중에 최만리, 김문, 정창손 등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글창제를 극력 반대하는 상소문까지 쏘이고 있는 상태에서 세종대왕은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를 알리지 않고 묻어둔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신미대사에 대한 세종대왕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고 한다.

이후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의 초석을 다진 고마움의 표시로 북한암에 삼존불을 조성, 시주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생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유언으로 신미대사에게 '선교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쌍운 우국이세 원유무에 해각존자'라는 긴 법호를 내렸다.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문종이 첫 시호를 내린 인물이 신미대사인 것을 봐도 세종대왕의 유언이 얼마나 간절했던 것인지 알 수 있다.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부터 신미대사와 가까웠고, 시호가 내려진 이후에는 늘 해각존자라고 불렀다고 한다.

세종대왕이 처음부터 불교에 마냥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찰노비를 정리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불교 중과를 선교 양종으로 병합시켰다. 선종 18사, 교종 18사의 총 36사를 본사로 인정했고, 나머지 사찰 토지나 상주하는 스님의 숫자로 삭감 정리했다.

도성 안에서의 경행도, 궁내의 연등행사도 금지시켰다. 하지만 왕실 중심의 기우(祈雨)·구병(救病)·명복(冥福) 등을 위한 불사는 계속 이루어졌다. 효령대군이 한강에서 7일간의 수륙재를 지내는 것을 허락했고, 흥천사 사리각 및 석탑 중수, 안거회·경찬회 등도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다. 즉위 30년이 되는 해에는 내불당(內佛堂)을 세우기까지 했다.

이처럼 말년을 불교에 귀의했던 세종대왕이 잠든 곳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을 부처님 오신 5월에 만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뜻 깊다. 우리 전통음악의 정립에 큰 획을 그었던 세종대왕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국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구성진 가락과 정서를 고즈넉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 공연인 5월 30일은 청명한 달빛 아래에서 운치 있는 야간 음악회로 꾸며져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관람접수는 여주시청(031-887-2065)과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031-880-5505)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음악과 함께 돌이켜본 세종대왕의 일생에는 불교가 참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승유역불정책을 썼던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교를 귀의처로 삼았던 세종대왕. 음악과 함께 세종대왕의 업적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불교의 인연담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 영릉 가는 길에 여주 목야박물관과 신륵사에 들려 불교의 향기에 잠겨보는 것은 어떨까?

강지연 구성작가



▲ 세종대왕릉

세종대왕릉인 영릉(英陵)은 조선 제4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합장하여 모신 능이다. 제17대 효종대왕과 인선왕후의 능이 위·아래로 자리한 영릉(寧陵)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매년 봄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이면 영릉의 아름다운 진달래동산이 일반에 특별 개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리더이자 성군으로 일순위에 꼽히는 세종대왕. 이번 음악회에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애민사상, 과학과 발명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는 매주 주제를

노래한 '여민락(與民樂)'도 모두 세종대왕의 작품이다.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한글 창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세종대왕은 최초의 한글작품 세 가지를 발표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산문으로 정리한 <석보상절>과 찬불가 <월인천강지곡> 그리고 선조들을 칭송하는 <용비어천가>가 바로 그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소헌왕후를 떠나보낸 세종대왕이 <석보상절>을 읽으며 느낀 소회를

불기2559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기2559년 부처님 오신날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부산 삼밀사 관세음보살 입상 및 원상 봉안 가지 불사



▲ 관세음보살 봉안 비밀의례를 봉독중인 통리원장 범등 정사



▲ 법어를 내리시는 효강 종령 예하



▲ 원상봉안 가지불사



▲ 인사말을 전하는 삼밀사 주교 서령 정사



▲ 부산 삼밀사 교도들과 함께



▲ 부산 만다라 합창단의 축하공연



▲ 관세음보살 입상을 살펴보시는 효강 종령 예하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테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바다의 볼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당뇨예방
감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大, 1.8리터) 20,000원
소(小, 0.9리터) 10,000원
※ 10병 이상은 무료배송 합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으로서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을 인식하여 불교사상 및 정신문화를 전달·보급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방송과 현대 미디어 발전 상황에 대한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방송(BBS)의 원안 해결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을 BBS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자격

- ①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
- ②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에 맞추어 불교정신과 사상 및 불교문화를 전달·개발·보급할 강한 의지를 가진 분
- ③ 방송에 대한 식견을 갖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응할 방송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지도하고 뒷받침할 역량과 경륜이 있는 분
- ④ BBS의 청사진 및 방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재원 발굴과 증대 등 경영 능력의 발휘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
- ⑤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부 (사진/ 상봉사진/ 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필수)
- ② 경영계획서 1부 (A4 5매 ~ 10매)
- ③ 수계증 등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④ 기타 의견서 (선택사항임)

• 제출(응모) 기간

2015년 5월 27일(수) ~ 6월 12일(금) 18:00 (12일 우편소인 유효)

• 제출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02-719-1855, 교한 210)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 연담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참고사항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2인) 추천 후 BBS(사회)에서 1명 선임함(BBS정관 제5조 5항).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15)

태장계만다라의 다섯 번째 궁실(宮室), 『지명원(持明院)』의 제존(諸尊)

지난호에서는 태장계만다라의 12대원(大院) 가운데 네 번째 궁실(宮室)인 '금강수원(金剛手院)'의 존상(尊像)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강수원은 중대팔업원의 오른쪽에 있는 궁실(宮室)로서 대일여래가 갖추고 있는 대지혜(大智慧)의 덕성(德性)을 나타낸다.

이번 호에서는 다섯 번째의 궁실인 지명원(持明院)에 있는 제존(諸尊)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지명원은 그림1)과 같이 중앙의 중대팔업원의 아래쪽에 있는 궁실로서 서방에 자리잡고 있다. 지명원(持明院)에는 반야보살, 대위덕명왕, 승삼세명왕, 항삼세명왕, 부동명왕의 다섯 분의 존상이 모셔져 있다. 이를 오대존(五大尊)이라 한다. 그래서 지명원을 달리 오대원(五大院)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명원이라는 명칭은 바로 이들 오대존(五大尊)이 절대자인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비밀한 말씀, 즉 명(明)과 진언(眞言)을 지중하고 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지명(持明)이란 '지혜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즉 지명원은 자비를 나타내는 관음원과 지혜를 나타내는 금강수원에 대하여서 이 둘을 실천적으로 삼수토록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 역할을 오대존(五大尊)이 담당하고 있다.



▲ 그림1) 현도만다라의 지명원

지명원의 오대존 가운데 반야보살을 제외한 부동명왕 등 4존은 분노형(忿怒形)을 하고 있으므로 지명원(持明院)을 달리 분노원(忿怒院)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반야보살은 부처의 대자비정신(大慈悲精神)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신에 4존(尊)의 명왕은 부처의 지혜로써 불법(佛法)을 따르지 않는 미혹한 중생을 항복시킨다. 그러므로 지명원은 중생의 미혹을 끊는 세계라고 한다.

분노하는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명왕은 모두 다섯 존(尊)이 있는데, 이를 오대명왕(五大明王)이라 부른다. 부동명왕, 항삼세명왕, 군다리명왕, 대위덕명왕, 금강야차명왕이다. 이 가운데 부동명왕, 항삼세명왕, 대위덕명왕은 태장계의 지명원에 모셔져 있으나 나머지 군다리명왕과 금강야차명왕은 지명원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 즉 이명동존(異名同尊), 동체이명(同體異名)으로 지명원이 아닌 다른 곳에 모셔져 있는 것이다. 이름과 모습은 달라도 몸은 같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군다리명왕의 경우는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에 모셔져 있는데, 불부(佛部)의 소실지원과



▲ 그림2) 반야보살



▲ 그림3) 대위덕명왕



▲ 그림4) 승삼세명왕



▲ 그림5) 항삼세명왕

연화부(蓮華部)의 연화원, 금강부(金剛部)의 금강수원에 있다. 즉 소실지원의 군다리, 연화원의 군다리, 금강수원의 군다리를 말한다. 이들은 모두 군다리명왕과 같은 동체(同體)의 군다리이며, 그 역할과 공능 또한 같다. 위의 승삼세명왕은 항삼세명왕으로 보기도 한다.

금강야차명왕은 군다리명왕과 마찬가지로 태장계만다라의 지명원에는 등장하지 않고 동체(同體)로서 다른 곳에 있다. 태장계의 금강수원(金剛手院)에 있는데, 금강야차명왕의 동체(同體)로서 금강야보살(金剛牙菩薩)로 등장하고 있다. 금강야보살은 무서운 표정의 금강야차명왕과 달리 아주 부드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단지 이빨로 악마를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금강야보살(金剛牙菩薩)이라 이름한 것이며, 역할과 공능에서 금강야차명왕과 같다.

지명원은 『대일경』에서 승삼세명왕과 부동명왕의 2존만이 설해져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 상에 반야보살과 다른 두 명왕(항삼세명왕과 대위덕명왕)이 더 해져 오대존(五大尊)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항삼세명왕과 대위덕명왕은 『금강정경』 계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항삼세명왕은 『금강정경』에서 언급되고 있고, 대위덕명왕은 『성엄만덕가위노왕립성대신험염송법(聖嚴曼德迦威怒王立成大神驗念誦法)』에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에서 태장계의 지명원(持明院)에 삽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지명원에 등장하는 오존(五尊)을 한 분씩 살펴보기로 한다.

지명원(持明院)은 여래의 자비와 지혜로써 중생을 접수하고 절복(折伏)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명원의 제일 중앙에 있는 존(尊)이 반야보살이다. 그림2)에서 보듯이 이 보살은 오대존 가운데 다른 명왕들과 달리 분노하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 아주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다. 중생들을 분노가 아니라 자비로써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명왕들은 분노하는 모습으로 중생을 강제적으로 인도하지만 반야보살은 자비로써 부드럽게 대하고 있는 말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한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보살은 말 안듣는 중생을 한없는 자비로써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살을 반야보살이라 한 것이다. 왜 반야보살이나 하면, 지혜가 자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비스러움에서 참다운 지혜가 묻어 나온다는 말이다. 물론 지혜가 있어야 자비를 낳는다. 자비는 무명(無明)을 멸하므로써 일어난다. 즉 12연기 가운데 생노사(生老死)의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자비는 생기한다. 생노사의 고통을 멸함은 바로 무명을 멸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반야보살을 여래의 지혜와 자비로써 중생을 접수하는 정법륜신(正法輪身)으로 분류하고 다른 4대명왕은 중생을 절복(折伏)시키는 지혜의 교령륜신(教令輪身)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야보살은 삼목(三目) 육비(六臂)를 하고 있다. 눈에 세 개고 팔이 여섯 개다. 삼목은 진리를 관하는 반야보살의 지혜의 눈(智目)을 의미하며, 깨달음의 당체인 불부(佛部), 자비를 나타내는 연화부(蓮華部), 지혜를 나타내는 금강부(金剛部)를 상징하고 있다. 여섯 개의 팔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옥바라미를 의미한다. 그래서 반야보살을 반야바라밀다보살이라고 하며, 부처의 지혜를 본질로 하는 본존(本尊)이다.

대위덕명왕은 반야보살의 왼쪽에 모셔져 있다. 이 명왕은 그림3)에서 보듯이 삼면(三面), 육비(六臂), 육족(六足)을 하고 있으며 삼면(三面)에는 각각의 삼목(三目)이 있어 총 18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삼면은 세 개의 얼굴을 말하는데, 본 얼굴의

좌우에 둘, 머리에 세 개의 얼굴이 있다. 삼목과 육비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의미이다. 많은 눈은 중생을 두루 살피기 위한 것이고 팔이 여러 개인 것은 여러 가지 무기로써 악마를 파괴하고 악마의 목숨을 끊기 위함이며, 팔이 여러 개인 것은 못중생을 제도하려 많이 돌아다니기

위함이다. 그래서 육족존(六足尊)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의 승삼세명왕은 대위덕명왕의 왼쪽에 있다. 그림4)와 같이 이 명왕은 삼목(三目)을 하고 왼손에는 삼고저(三鉞杵)를 쥐고 있고 오른손에는 삼고극(三鉞戟)을 들고 있다. 세 개로 갈라진 창(槍)을 말한다. 이 명왕을 달리 항삼세명왕이라고도 한다. 삼세(三世)란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색계, 욕계, 무색계의 삼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탐진치(貪嗔癡) 삼독(三毒)을 말한다. 이를 항복시켜 끝내 승리로 이끈다는 의미가 승삼세이다. 양손의 삼고저나 삼고극으로써 삼독심을 없애고 온갖 장애를 극복하여 지혜를 얻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명왕들에 나타나고 있는 등유의 화염(火焰)은 삼독심과 번뇌망상을 불로 태워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야보살의 오른쪽에 있는 명왕이 항삼세명왕이다. 그림5)에서 보듯이 삼면(三面), 팔비(八臂)를 하고 있으며, 그 삼면에는 각각 삼목(三目)이 있고 총 9개의 눈을 지니고 있다. 삼세(三世)를 항복시킨다는 것으로 항삼세와 승삼세는 같은 의미이다.

제일 오른쪽에 부동명왕이 있다. 부동명왕은 명왕을 대표하는 존(尊)으로 일본에서는 본존(本尊)으로 숭앙되고 있다. 정수리에 연화를 이고 뒷머리는 땅아서 길게 늘어뜨린 모습을 하고 있다. 왼손에는 동아줄(索), 오른손에는 칼을 지니고 있다. 동아줄은 중생을 끌어 당겨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뜻하고, 칼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어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화는 자비를 의미하고, 머리를 땅은 것은 대일여래의 하인(下人)으로서 오로지 중생구제에 몰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명원의 명왕은 오불(五佛)의 교령륜신(教令輪身)으로서 지혜의 바다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 안듣는 중생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있다.

(다음호에서는 '석가원'의 제존(諸尊)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서울경인교구

지 회장 : 김 은 속
부 회장 : 박 정 회
 손 경 욱
총 무 : 이 인 성
 홍 순 화
재 무 : 양 재 범
감 사 : 신 일 생
 이 연 수

부산경남교구

지 회장 : 신 인 록
총 무 : 정 남 선

대구경북교구

지 회장 : 한 영 란
총 무 : 임 연 욱

충청전라교구

지 회장 : 민 순 분
총 무 : 이 민 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사장후보 추천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이 5월 27일(수) ~ 6월 12일(금) 18:00(12일 우편소인 유효)까지 불교방송 사장후보 추천을 공모한다.

지원자격은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에 맞추어 불교정신과 사상 및 불교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개발·보급할 강한 의지를 가진 분, 방송에 대한 식견을 갖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응할 방송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지도하고 뒷받침할 역량과 경륜이 있는 분이다.

또 BBS의 청사진 및 방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재원 발굴과 증대 등 경영 능력의 발휘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 (사진/상벌사항/서명·날인 포함), 경영계획서 1부 (A4 5매 ~ 10매), 수계증 등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의견서 (선택사항임)이다.

문의처는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02-719-1855, 교한 210)

한편 불교방송 사장은 BBS정관 제5조 5항에 의거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2인) 추천 후 BBS이사회에서 1명을 선임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카자흐스탄

고려인 한국전통문화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015년 한국문화체험사업 일환으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4월 3일부터 7일까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이곳 고려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현지 고려인 문화협회와 불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고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여 동포애의 의미를 새길 수 있을 것이라며 준비된 이번 행사에는 협회 사무총장 월도스님을 단장으로 참여하였으며, 크게 한국문화체험행사와 고려인 추모 위령제로 순으로 준비 되었다.

4월 4일 고려인협회 강당에서 치러진 한국문화체험행사는 1부 식전행사와 2부 고려인 문화공연, 3부 한국문화체험행사로 진행되었다.

총 300명이 넘는 고려인 동포 분들과 소수민족 분들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1부 식전행사에서는 고려인 협회 인사들의 감사인사와 함께 이번 행사에 협조해준 고려인 3명에게 사무총장(월도스님)이 감사장을 전달하고 격려

하였다.

2013년 고려인 최대 거주국가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된 카자흐스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고려인 약 1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고려인 남녀 어르신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고국노래와 카자흐 민요 등 노래공연에 이어 고려인 전문공연단의 전통부채춤, 청소년 사물놀이패의 공연이 이어져 열띤 환호를 받았다.

이어진 3부 한국문화체험행사에는 연등만들기, 지화만들기체험, 부채 단청 그리기, 단주만들기, 다도체험, 한글이름 써주기, 한국문화재 접기, 불교사진전시 및 다도행사 등 다양한 고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의미 있는 하루였다.

4월 5일, 알마티에서 약 70km 떨어진 캅카가이에 위치한 고려인묘지에서 거행된 추모위령제는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강제이주로 정착하기까지 힘든 삶을 살다 간 분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제18대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한태식 교수) 선출

동국대학교 제18대 총장에 한태식(보광) 교수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일면스님)는 2일(토) 오후 3시 장안동 은석초등학교에서 제290회 이사회를 열고, 한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한 총장의 임기는 2019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신임 한태식 총장은 197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사학위, 1985년 일본 교토불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동

국대 정각원장, 대외협력처장,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1996년부터 9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등을 8년간 역임하면서 학교발전기금 610여억 원을 조성한 바 있다.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토사 주지, 대각사상연구원장, 한국정토학회 명예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문화재단 문화재위원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는 5월 3일 오후 6시 30분 지관전에서 불기2559년 부처님 오

신날을 맞아 분단70주년 남북평화통일기원 봉축점등대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 지관전에서 봉행된 점등대법회에는 천태종 중흥 도용스님을 증명대법주로, 춘광 총무원장스님, 문덕 종의회 의장스님, 용암 감사원장스님, 덕수 사서실장 스님, 각 부장스님과 중단의 대중스

포,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 김석준 교육감, 나성린 국회의원, 서용교 국회의원, 이한승 신도회장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2만여명이 참석하였다.

점등법에 앞서 점등사를 한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은 "어둠을 밝히는 부처님의 광명이 삼광사 청정도량에서 만등의 불빛으로 시방세계를 비추어 태고, 상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소멸하는 등 불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의 불성을 드러내자"고 말했다.

이어 축사와 화엄합창단의 축가가 끝난 후, 지관전 밖으로 나와 일제히 점등을 했다.

님, 부산진구불교연합회 고문 혜충스님,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효원정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

네팔 불교 긴급재난구호봉사대

5월 4일 구호키트 30톤씩 5일간 전달



네팔 현지에서 파견된 대한불교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가 5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5일간 현지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배분했다.

봉사대의 구호물품 배분이 이뤄진 곳은 네팔 정부가 지정한 12개 최우선 식량지원 지역 중 하나인 신두팔촉(Sindhupalchowk) 지역으로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약 60km 떨어져 있다.

신두팔촉은 국제구호단체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와 지진 진앙지인 고르카(Gorkha)와 달리 구호단체의 지원이 소외된 지역으로 의료

시설 최대 90%가 심각하게 피해 혹은 파손되고 사망자수가 전국 1위(1176명)로 발표된 지역이다.

약 15만불 상당(한화 1억 6000만원)의 현지에서 구입한 긴급구호키트는 쌀, 납작쌀, 소금, 콩, 라면, 식용유, 전동차, 설탕, 밀가루, 비누 총 10가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25톤 분량의 5000개 구호키트를 50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4월 27일 네팔에 파견된 봉사대의 활동 기간도 오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전화사

주 교: 정사 법 상
전수 정 원
☎ 054-761-2466

개천사

주 교: 정사 우 인
전수 보 명심
☎ 053-425-7910

국광사

주 교: 전수 혜 안 정
☎ 054-772-8776

단음사

주 교: 정사 도 우 현
전수 지 현
☎ 054-333-0526

선립사

기로스승: 보 원
심 지 장
☎ 054-261-0310

수계사

기로스승: 안 주 화
☎ 054-745-5207

수인사

주 교: 정사 안 성
전수 유 가 해
☎ 054-247-7613

승천사

기로스승: 원 봉
지 선 행
☎ 054-746-7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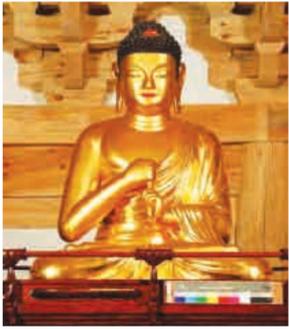
제석사

주 교: 전수 행 원 심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陝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소재 지: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길 132-13 (가야면, 해인사) 시 대: 신라 말에서 고려 초



▲ 제1752호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일신라 말~고려 초에 제작된 목조불상으로 1m가 넘는 크기에, 조형성은 물론 조각적인 완성도까지 갖춘 작품이다. 동금동글한 나발, 이상화된 얼굴과 당당한 신체 표현, 신체에 감기듯 뿔뿔하게 걸쳐 입은 편단우견의 착의형식과 더불어 치켜세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권지권인의 형태, 긴장감 넘치게 조각된 옷주름 등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비

교될 수 있다. 복장유물로는 다라니, 발원문 그리고 후령통 등 여러 종류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1167년경과 1490년의 중수 때 납입된 것이다. 특히 1490년에 납입된 후령통은 안립 절차에 입각하여 정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조상경(造像經)』이 간행되기 이전에 이미 복장의식이 정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사씨(史氏) 일가에 의해 납입된 반야심경의 발원문은 1167년(고려 의종 21)에 불상에 대한 중수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자료여서 이 불상의 하한연대 결정에 결정적인 자료이다. 이 밖에 1150년, 1156년, 1166년에 각기 판각한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소설일제다라니』가 발견되었다. 복장물 가운데 3점의 조각보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 조각보의 역사가 50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저고리는 조선 초기의 홀저고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령통 내부의 오보병은 그 구성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방식을 갖추고 있어 직물사와 복장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제 7기와

글/그림 정수일 <http://cafe.daum.net/carissam>

친구해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제대하고 나오니 참 할 게 많구나. 그럼, 그런 정신으로 부지런히 살아야지.

난, 콩밥먹고 나온 사람! 밖에 나오니 할 게 없어. 자, 잠곡밥이 건강에 좋지.

소외계층 등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내 힘을 보태고 싶어! 나무관심! 친구하고 싶은 사람.

여기저기 지진도 일어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세상인데 손잡고 한 탕 하자구! 나무관심!

나 자신을 믿긴 하지만, 외롭고 지칠 땐 부처님께 의지해야지. 나약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을 믿으면 밥 먹여준대? 다 쓸데없는 짓이야. 내 주먹을 믿어. 헐! 당신 주먹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삶에 지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먼지도 털어 줄 수도 있지. 그 다음엔?

이 주먹으로 길 가는 사람 뒷통수를 쳐 돈 터는 거지. 그 다음엔?

그 다음엔 내 옷에 묻은 먼지도 털고 손도 닦아야지. 훌륭한 사람, 짜장면 같이 합시다.

그 다음엔 비싼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시는 거지. 경찰서죠? 이놈 좀 잡아가시오.

내용참조: "불교총전" 타인에 대한 덕의편 552P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12. 양류지수(楊柳枝手) 진언



옴 소싯지 가리바리 다남타 목다에 바아라 바아라 반다
하나하나 흠바탁
만약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자 이 진언을 외우라

불기2559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기2559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심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제85회 춘기 강공회 강의

삼밀관행(三密觀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범경 정사

삼밀관행(三密觀行)은 삼밀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삼밀 가운데 의밀(意密)인 관법(觀法)을 강조하여 부르는 말이다. 우리 종단에서는 '삼밀유가관행법(三密瑜伽觀行法)'이라고도 한다.

이는 삼밀수행에 신밀(身密)과 의밀(意密)을 더하여 합성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 가운데 유가(瑜伽)라는 말은 인도의 요가(yoga)라는 말을 한문으로 음역(音譯)한 것이다. 삼밀유가란 삼밀가치·삼밀상응과 상통하는 말로, 밀교수행법으로써 중생의 신구의(身口意) 삼밀이 본래 부처님의 삼밀과 동일하여

차별이 없음을 알고, 구체적 실천적 수행방법으로 손으로 결인(結印)을 맺고, 입으로 진언을 외우며, 뜻으로 자기는 본래 불보살임을 알아서 중생과 부처는 본성이 같고 본체가 동일하다는 관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 우리의 삼밀이 부처님의 삼밀과 상응하여 일치하고, 상호 섭입(攝入)하여 걸림이 없으며 내가 부처님에게 들어가고 부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일여(一如)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일러 '삼밀유가(三密瑜伽)' '유가삼밀(瑜伽三密)' 또는 '삼밀가치

(三密加持)'라 한다. 삼밀상응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행자의 신구의(身口意) 삼밀과 부처의 삼밀이 서로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지종의 삼밀유가관행법은 구체적으로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입으로 진언을 염송함과 동시에 뜻으로는 본존이나 진언을 관하는 수행법이다. 이를 실지정진(悉地精進)이라 한다. 실지(悉地)는 범어 싯띠(siddhi)의 음역(音譯)으로 '성취(成就)' 또는 '묘성취(妙成就)'의 뜻이며, 성취를 위한 진언염송이므로 실지정진인 것이다. 이러한 삼밀수행은 경전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에서는 삼밀을 '신어삼'이라 표현하고 '모든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금강(金剛)'에 비유하였다. 굳세고 단단한 것이 곧 삼밀이라는 것이다. 즉 삼밀을 '삼금강(三金剛)'이라 표현하였다. 그래서 삼밀수행으로 행자는 금강신(金剛身)을 이룬다고 한다.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定-samādhi)에 들어야 한다. 삼매에 들었을 때 삼밀가치가 된다. 그래서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에서 설하기를, '능히

선정금강(禪定金剛)에 안주(安住)하면 제불(諸佛)과 반드시 상응할 수 있다'고 하였고, '삼금강(三金剛)은 곧 선정행(禪定行)과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定)에 드는 수행은 밀교의 삼밀 가운데 의밀(意密)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삼매에 들어서 가치(加持)가 되려면 우선 사마타수행을 행해야 하며, 또한 밀교의 관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행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법과 총지종의 염송차제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불교서적
에세이

태국불교의 여유가 느껴지는 에세이

〈슬프고 웃긴 사진관〉

입구에서 봤던 그 납작한 그릇은 몇 마린지 셀 수도 없이 많은 떠돌이 개들을 위한 밥그릇이었던 것입니다. 또 법당 안은 고양이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콕에 있는 '왓 포라'는 관광지화 된 절에는 개들 뿐 아니라 그 지역 노숙자들까지 몰려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꺼리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으며 그들 또한 자기 집처럼 그곳을 편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절은 부처님을 위한 엄숙한

수 없이 대학을 졸업 후 태국의 고승인 아잔 차스님 문하로 출가해 30여년 수행했으며,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에 있는 명상센터에서 불교 명상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웃긴 사진관〉은 아잔 브람이 2013년 초에 방한해서 한 법문을 엮은 에세이로 서른 여덟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은 시종일관 재미있고 간결합니다. 유쾌한 워트 속에서 삶의 지혜와 감동을 전합니다.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을 바꿀 필요도 없고 직업을 바꿀 필요도 없고, 이 자리를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태도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p37)

위에서 인용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스님은 퍼스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해서 수감자와 대화를 나눴던 에피소드를 얘기했습니다.

수행자는 아침은 죽으로 먹고, 점심은 채소를 먹고, 수행자는 아침은 죽으로 먹고, 점심은 채소를 먹고,

수행자는 아침은 죽으로 먹고, 점심은 채소를 먹고,
또 오후에는 굶는다고 하자 수감자가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공간이 아니라 산부처들을 위한 자비의 공간이었습니다.

영국인이지만 태국 사찰로 출가해 30여년 수행승으로 살아온 아잔 브람 스님의 저서 〈슬프고 웃긴 사진관〉에는 프라비에서 보았던 태국 불교의 모습이 읽혀졌습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느껴졌으며, 유머와 여유가 느껴지는 불교, 친절한 불교, 생활과 밀접한 불교, 탈권위적인 불교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슬취한 꼬끼리 길들이기〉 〈성남 물소 놓아주기〉 등 베스트셀러를 많이 쓴 아잔 브람스님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했지만 인생에 대한 의문을 지울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그곳에 있고 싶지 않다면 모두 감옥인 셈입니다. 어디에 있던 자기 자신이 늘 자유로워야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혼 상태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 그 결혼은 감옥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회사에 가고 싶지 않다면 그 사무실도 감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데, 여기 있기 싫다면 이곳 또한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수많은 감옥들로부터

또 오후에는 굶는다고 하자 수감자가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면서 오히려 스님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수감자 얘기를 한 후 수행자와 수감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문은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와 삶의 깨달음이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대체로 태국 절에서 내가 느꼈던 것처럼 자비심이 기반이 된 여유와 유머였습니다. 경직된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어울리는 조인이었습니다.

(아잔 브람/김영사/1만3천원)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만보사

주 교 : 정사 승원
전수 묘원화

☎ 042-255-7919

백월사

주 교 : 전수 환수원

☎ 042-527-5470

법황사

주 교 : 정사 도현
전수 자인행

☎ 062-676-0744

혜정사

주 교 : 전수 진일심

☎ 043-256-3813

흥국사

주 교 : 정사 지정

☎ 063-224-4358

중원사

주 교 : 전수 정정심

☎ 043-833-0399

충청·전라 교구 일동

총기 44년 불기 2559년

봉축법요식

일시 : 5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종령 **호강** 대종사

통리원장 **법등**

중앙총의회 의장	수 현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법 등
총무부장	인 선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우
재무부장	우 인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교정부장	원 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 성
사회부장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 정

중앙총의회 의원	법장원	총지중보 및 종보통신원
총지중 유지재단	밀교 연구소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 공부방 · 초록어린이집
전당건설 위원회	(재) 사회복지재단	일원어린이집 포레스트7단지 어린이집
통리원 임직원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주) 이지스상조
		각 교구 신정회 일동



불교총지중

부처님오신날

하반기 49일 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매일 오전 10시